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모성간호학 실습 학습방법 효과 분석*

이 성 은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보건의료 교육에서 임상현장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간호교육의 중요 영역인 임상실습 교육에 있어서 효과적인 교육방법의 부재, 임상교육자의 부족, 대상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 증가 및 일부 사례부족 등으로 학생들은 충분한 임상수행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졸업하기도 한다. 졸업 후 요구되는 최소한의 실무능력도 부족한 일부 간호사들이 임상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 임상현장의 비판적인 현실이다(최자운, 장금성, 최순희, 홍미순, 2008). 따라서 취업 직후에도 많은 병원에서 다시 간호사 재교육을 실시하는데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간호학에서의 전통적 실습교육은 단순한 실습환경에서 간호기술을 배우게 되어 있던 바, 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대상자들의 실제상황을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험을 제공하지 못한다(Beeson & Kring, 1999). 따라서 교수나 학생 모두에게 불만족의 요인이 된다. 또한 학생은 실제 대상자에게 간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숙함이나 실수에 대한 부담감으로 당황하게 되는 등 높은 긴장과 불안을 경험하기도 한다(박미영, 김순이, 2000). 따라서 학생이 새롭게 기대되는 임상실무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 과정과 제도의 다양화를 이루어야 한다(김윤미, 박영숙, 정재원, 김문정, 2006).

기존 교육방법의 문제해결 능력 및 실무적용 능력 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법으로 시뮬레이션 학습방법이 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교육의 특성상 각종 수 기술이나 임상경험을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는 것은 교육효과를 폭넓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정웅 등, 2006). 임상에서의 실 수나 다양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를 이용한 교육 이 증가되는 추세이며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로 경험하 게 될 환자 사례를 병실과 유사하게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 학생이 스트레스 없이 능숙해질 때까지 실습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줄일 수 있다.

특히,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은 실제 상황처럼 설정된 비구조화된 학습 환경 속에서, 환자처럼 보이도록 준비된 표 준화 환자에게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방법이다. 현실 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상황을 잘 구성하여 학습하기 때문에 실제 환자를 대하는 임상교육보다도 더 많은 교육적인 기회 를 제공할 수 있다(홍영재, 1992). 의학 분야에서는 1960년대, 간호학에서는 1970년대 처음 소개가 되었으며 국내 간호학 분야에서도 연구가 지속되고 있지만, 사전 준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몇몇 분야에 국한되고 있다. 최근 들어 의학 분야에서 는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임상수행도 평가(CPX,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가 진행되고 있다. 간호학에서도 표 준화 환자를 이용하여 실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면서 임상수 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면 지식, 임상수기 및 태도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실습평가 가능할 것이다(최자운 등, 2008). 잘 구성된 표준화 환자일 경우 실습실이나 실제 상황보다 학습

주요어 : 표준화 환자, 모성간호, 학습방법, 학습효과

* 2009년 경인여자대학 연구원 논문.

1) 경인여자대학 간호과 부교수(교신저자 E-mail: leese@kic.ac.kr)

투고일: 2011년 3월 10일 심사완료일 2011년 4월 5일 게재확정일: 2011년 4월 5일

목표나 의사소통을 더욱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이 자신감과 만족감을 갖도록 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간호학 연구결과도 있다(유문숙, 유일영, 2001).

간호학의 세부 분야마다 특수성이 있겠지만 특히 모성간호학은 임신과 분만, 산욕에 이르는 과정이 역동적이고 가족을 단위로 한 다양한 문제가 포함되어 간호문제들이 복합적이다(김윤미 등, 2006). 최근 들어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임상현장에서의 출산 사례가 현저히 줄어 학생들이 실제 임상에서 적응하고 간호실무를 관찰하며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교육’과 ‘실무’를 연결시켜 임상실습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실무능력 및 실습 만족도를 증가시켜 줄 수 있는 교육적 대안이 절실하다.

여러 가지 수행상의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법의 시도는 모성간호학 임상실습의 여러 가지 한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국내 모성간호학 임상실습 분야에서 표준화 환자를 직접적으로 이용한 학습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례부족으로 충분한 임상경험을 가질 수 없는 교육현실에서 시급히 개발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모성간호학 분야에서도 학생들의 임상적응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효과적인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 중 특히, 유문숙(2001a)의 연구를 기반으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법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모성간호학 생리적 측면의 대표 영역인 분만 산부 및 산욕부 간호영역에서 새로운 교수-학습전략으로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모성간호학 실습 학습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평가하여 궁극적으로 임상적응 및 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모성간호학 실습 교육에서 임상실습 전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개발하고, 실제 임상현장으로 실습을 나가기 직전의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그 학습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모성간호학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과 전통적 실기 학습법을 적용한 후 의사결정능력, 간호기술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을 비교·분석하기 위함이다.

연구의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모성간호학 실습 학습방법을 적용한 실험군은 전통적 실기 학습법을 적용한 대조

군보다 의사결정능력 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모성간호학 실습 학습방법을 적용한 실험군은 전통적 실기 학습법을 적용한 대조군보다 간호기술수행능력 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3.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모성간호학 실습 학습방법을 적용한 실험군은 전통적 실기 학습법을 적용한 대조군보다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높을 것이다.

용어의 정의

● 표준화 환자 학습법(Standardized Patients methods, SP methods)

실제 환자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인 표준화 환자를 이용하여, 의료분야 학생들이 다양한 임상문제에 대하여 사정하고 진단하고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교육방법의 한 형태이다(Vessey & Huss, 2002). 본 연구에서는 교육 및 훈련을 받아 분만 산부와 산욕부 역할을 수행하는 자인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모성간호학 실습 학습방법을 말한다.

● 전통적 실기 학습법(traditional lecture/model method)

교수가 강의와 시범을 보이고 학생들도 각 모형을 이용하여 훈련하는 학습방법을 말한다(유문숙, 유일영, 박연옥, 손연정, 2002). 본 연구에서는 교수의 기본적인 강의와 모형을 통한 시범 그리고 학생이 모형을 이용하여 훈련하는 학습방법을 말한다.

● 학습효과(learning effect)

학습자가 연습이나 경험의 결과로서 바람직한 진보적 행동변화가 나타나는 정도로(Glaser, 1992),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적용하여 의사결정능력, 간호기술수행능력 및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한 결과이다.

- 의사결정능력(decision making skills)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대안 중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능력이다(Schwartz, 1990). 본 연구에서는 분만 산부와 산욕부의 사례를 보고 관련 각 영역별 15개 이상의 자료를 파악하는 능력과 4가지의 간호술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 간호기술수행능력(nursing skill performance)은 지식, 기술, 태도, 자아인지, 동기가 통합되어 간호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대상자에게 적절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다(엄영란 등, 1998). 본 연구에서는 분만 중 산부에게는 자궁수축 사정, 태아심음 측정, 진통완화법, 정서적 지지의 4가지 간호술 그리고 산욕부에게는 자궁퇴축 사정, 배뇨 및 회음

부 간호, 산후 자간호 교육 및 유방관리의 4가지 간호술을 프로토콜에 따라 수행하는 정도를 측정한 점수이다.

-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skill)은 사람의 의도나 뜻이 언어적 진술, 태도, 동작, 신호, 음성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는 능력이다(Reusch, 1973). 본 연구에서는 유문숙(2001a)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표준화 환자와 간호학생 사이에서 언어와 태도를 통하여 서로 지각하고 해석하여 반응을 보이는 능력을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간호학생에게 적용한 후, 그 학습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설계를 적용한 유사실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기간과 대상

본 연구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인천 소재 전문대학에서 모성간호학 임상실습을 2-3주 앞둔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주간의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에 참여한 직후 대학병원이나 여성전문병원의 분만실이나 산부인과 병동에 배치되어 실습을 하게 될 학생 중 연구에 동의하는 자에 한하여 임의표출 하였다. 교육방법 및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수는 G*power 프로그램(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으로 효과크기 0.6, 검정력 0.8, 유의수준 0.05로 하였을 때 각 군당 16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실험군은 총 40명으로, 분만 산부와 산욕부 간호영역에 각 20명으로 구성되었다. 대조군 역시 총 40명으로, 분만 산부와 산욕부 간호영역에 각 20명 이었다. 대조군에게는 전통적 실기 학습법으로 모성간호학 임상실습 관련 내용을 교육하였다. 각 그룹에 배치된 학생들은 서로 엇갈려서 임상실습과 강의에 참여하는 일정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모성간호학 실습 학습방법 개발 및 적용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개발하는 전체적인 과정은 <Figure. 1>과 같다. 최종적으로 간호학생이 실제처럼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상 임상상황을 구현하고, 개발된 학습법을 적용하였다.

● 학습과제 선정

모성간호학의 중점 영역인 분만 산부와 산욕부 간호를 학습과제로 결정하였다. 모성간호학 강의와 임상실습 지도를 담당하는 교수 4인이 관련 교과내용과 수년간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임상현장 지도자 2인의 자문을 받았다. 이를 통해 도출된 가장 보편적인 임상사례를 근거로 필수적인 간호가 제공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였다. 분만 산부

<Figure 1> Process of the study

간호영역에서는 자궁수축 사정, 태아심음 측정, 진통완화법, 정서적 지지의 4가지 학습과제를 정하였다. 산욕부 간호영역에서는 자궁퇴축 사정, 배뇨 및 회음간호, 유방간호, 퇴원 후 자가간호 교육의 4가지 과제를 선정하였다. 두 영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의사소통을 학습 과제로 선정하였다.

● 학습목표 선정

각 영역의 학습과제에 따른 학습목표는 대한간호협회에서 주관한 학습목표 개발 작업에서 이루어진 모성간호학 학습목표 그리고 관련 교과서를 토대로 선정하였다. 분만 산부 간호영역에서는 자궁수축 사정 2개, 태아심음 측정 3개, 진통완화법 3개 그리고 정서적 지지에서는 2개의 학습목표를 도출하였다. 산욕부 간호영역에서는 자궁퇴축 사정 3개, 배뇨 및 회음간호 5개, 유방간호 2개 그리고 산후 자가간호 교육에서는 2개를 학습목표로 선정하였다. 의사소통에 대한 학습목표는 관련분야 전문가 2명과 모성간호 임상실습을 지도하는 4명의 교수의 동의를 거쳐 유문숙(2001a)의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의 개발 및 효과분석’에서 제시한 8개의 학습목표 중 5개를 사용하였다.

● 학습프로토콜 개발

학습목표를 토대로 간호수행 절차와 순서에 따라 문항을 제시하여 학습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 각 간호기술 항목을 나열하였는데, 분만 산부 간호영역에서는 자궁수축 사정 11개, 태아심음 측정 14개, 진통완화법 8개 그리고 정서적 지지는 7개 항목의 학습프로토콜을 구성하였다. 산욕부 간호영역에서는 자궁퇴축 사정 12개, 배뇨 및 회음간호 7개, 유방간호는 10개 그리고 산후 자가간호 교육은 6개 항목으로 학습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 의사소통능력의 학습목표는 관련 교수와 임상현장 전문가의 동의를 토대로 유문숙(2001a)의 프로토콜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 사례 및 표준화 환자 시나리오 제작

각 학습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 할 수 있는 사례 및 표준화 환자 학습을 위한 시나리오를 제작하였다. 실제 임상에 입원한 대상자의 의무기록을 통하여 신체적, 정서적 상태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모성간호학 지도를 담당하는 교수 4인이 사례분석을 한 내용을 근거로 분만 산부 및 산욕부 사례 각 2개를 선정하였다. 각기 다른 기관의 10년 이상 임상현장 지도자 2인이 선정된 사례와 학습과제, 학습목표 그리고 학습프로토콜을 비교하면서 의견을 제시하여 보다 현장감 있게 수정·보완하였다. 표준화 환자의 구체적인 언행을 담은 시나리오에는 산모나 산욕부의 의상, 용모, 신체적 변화나 움직임 그리고 간호학생 대면시 취해야

할 태도, 말투와 예견되는 각 상황별 대응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 표준화 환자 선발

개발된 사례를 실제 상황처럼 시연할 수 있는 표준화 환자를 모집하였다. 표준화 환자의 반응을 통해 간호학생이 대상자에 대한 태도, 지식 및 간호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간호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을 모집하였다. 단기 교육으로 산모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적절한 반응을 연기해야 하며 간호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의 평가에도 참여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교수와 의사소통이 원활한 자를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30세 전후의 여성 중에서 실제 분만 경험이 있거나 관련 병동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현직 및 퇴직 간호사 2명을 선발하였다. 연구가 종료된 후에 연구 참여에 대한 사례를 하였다.

● 표준화 환자 훈련

표준화 환자 훈련은 관련분야 임상경험 및 모성간호학 강의와 실습지도 경험이 15년인 연구자가 직접 담당하였다. 사례의 시나리오에 대한 본격적인 연기훈련에 앞서 2시간 동안 분만 산부와 산욕부에 대한 관련 간호지식을 교육하였다. 연기훈련을 각 2시간씩 2회에 걸쳐 시행하였다. 현재 임신상태가 아닌 표준화 환자가 실제 산부와 같은 복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산모 입원복 아래 임부체험복을 입어서 분만 중 산부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특히, 태아심음 측정 시에는 태아심음 측정 시뮬레이션을 침상 위 표준화 산모 옆에 밀착하게 배치하여 태아심음 측정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준화 환자에게 실제 분만 산부와 같은 행동과 태도 그리고 언어적 표현을 하도록 훈련하였다. 간호학생의 모든 행위나 의사소통에 따른 언어적, 신체적 반응도 표준화 환자가 반응을 보이도록 연기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돌발적인 태도나 언행에 따른 적절한 반응도 연습하도록 하였다. 산욕부 역할을 하는 표준화 환자 역시 유방모형을 가슴부위에 착용하고 산모 입원복을 입었다. 산후 자궁퇴축 모형, 산후 회음부 사정모형을 신체에 밀착·고정하여 마치 표준화 환자에게 직접 간호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였다. 부득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간호기술에 대하여, 표준화 환자의 직접적 신체노출 없이 최대한 현장감 있게 간호수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모성간호 분야의 임상경력자 2인이 표준화 환자의 연기를 관찰하면서, 임상에서 만나는 실제 산부나 산욕부와 다름없는지를 검증하였다. 표준화 환자에 대한 선발 및 훈련과정은 간호학생들에게는 비밀로 진행하였다.

● 가상 임상상황 구현

표준화 환자 학습법 지도에 참여 하게 될 연구자를 포함한 관련 교수 2인이 직접 표준화 환자에게 간호술을 시행하는 모의 훈련을 2회 시행하였다. 교수 2인, 표준화 환자 2인 그리고 3학년 간호학생 2인이 참여하여 가상 임상상황을 구현해보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부자연스럽거나 지나치게 정형화된 표준화 환자의 반응은 교정하여, 실제 임상에서 볼 수 있는 간호대상자의 반응과 간호사의 간호수행 항목들에 대한 일치도가 90% 이상으로 나타나도록 하였다.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의평가를 시행하였다. 교수자 2인이 표준화 환자를 간호하는 학생을 동시평가하고 점수를 비교해 보는 과정을 거쳐 평가자간 오차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80% 이상의 평가 일치도를 볼 때까지 동시평가를 반복하였다. 특히, 표준화 환자도 간호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평가에 참여하므로 모의평가를 통하여 표준화 환자와 교수자간 평가오차를 최소화 하는 과정을 거쳤다.

●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모성간호학 실습 학습방법 적용

표준화 환자 학습법을 개발한 본 연구자와 관련 교수 1인이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법을 실험군에게 적용하였다. 교수가 사례에 대한 기본 강의를 시행한 후에, 학생들은 한명씩 실제 표준화 환자에게 간호술을 수행하였고, 교수는 이에 대하여 피드백을 하였다. 학생이 간호를 수행하는 동안 동료 학생들도 같이 관찰하였다. 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표준화 환자를 최근에 출산 경험이 있는 일반 여성이라고 소개하였다. 교수 2명이 각각 나누어 분만 산부 간호와 산욕부 간호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였는데, 실습교육임을 감안하여 교수 1인당 10명 이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분만 산부와 산욕부 간호영역의 각 4가지 학습과제에 대하여 2시간씩 3회 학습을 시행하였으므로, 간호 학생은 1인당 총 6시간의 교육을 받았다. 실험군이 총 40명이므로 2명의 교수는 1차 교육에 각 10명씩, 총 2차례에 걸쳐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였다.

대조군에게는 전통적 실기 학습법 즉, 사례에 대한 기본 강의 후 교수가 실습모형에 시범을 보였다. 학생들은 한명씩 실습모형을 이용하여 태아심음 측정이나 자궁수축 측정과 같은 간호술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연구 도구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법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의사결정능력, 간호기술수행능력 그리고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할 위한 3가지 도구를 사용하였다.

● 의사결정능력

분만 산부나 산욕부 관련 사례를 보고 의미있는 자료를 판단하고, 간호술을 제시할 수 있는 2가지 능력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유문숙, 2001a), 이를 점수로 환산하였다. 간호학 교수 4인과 임상지도자 2인이 직접 사례를 보고 관련 자료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친 바, 최소 15개 이상의 자료를 찾아서 95%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분만 산부와 산욕부 간호영역에서 자료의 파악능력은 자료 1개당 1점씩 총 15점 만점으로 계산하였다. 또한 간호술제시능력은 두 영역에서 각 4개의 관련 간호기술을 선별해내는 능력으로, 5점씩 총 20점 만점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결정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 간호기술수행능력

간호기술 수행능력 평가도구는 분만 산부 간호영역에서는 자궁수축 사정, 태아심음 측정, 진통완화법 그리고 정서적 지지에 관한 4가지 간호항목의 학습프로토콜을 연구자가 직접 체크리스트의 형태로 변형하였다. 산욕부 간호영역에서도 자궁퇴축 사정, 배뇨 및 회음간호, 유방간호 및 산후 자간호 교육에 관한 4가지 간호항목을 체크리스트의 형태로 변형하였다. 이를 간호학 교수와 임상지도자의 자문을 거쳐 모든 항목에서 90%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각 영역의 개발된 학습 체크리스트는 ‘잘 수행함(2점)’, ‘수행능력 미숙함(1점)’, ‘수행하지 못함(0점)’의 3점 척도로 구성된다. 학생의 간호기술 수행상황을 보면서 교수 2인이 동시에 평가한 후 그 평균점을 구하였다.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기술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 측정도구는 유문숙(2001a)이 개발한 간호사로서의 전문적 태도를 묻는 2개의 문항과 간호수행 중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두 영역 모두에서 교수 4인과 임상전문가 2인의 90%이상 동의를 거쳐 5가지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도구는 ‘매우 잘함(5점)’에서 ‘매우 못함(1점)’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며, 간호학생이 간호술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교수 2인과 표준화 환자 1인이 평가결과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945였다.

자료 수집

학습과정이 종료된 후 3일 이내, 중재 학습에 사용되었던 것과 유사한 사례를 학생에게 제공하였다. 의사결정능력의 평가는 지필고사 형식으로 하였다. 각 그룹별로 동시에 평가하

고 추후 교수가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자료파악능력과 간호술제시능력에 대한 점수를 매겼다. 간호기술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사례의 분만 산부나 산욕부 역할을 표준화 환자에게 연기하도록 하였다. 표준화 환자의 반응을 보면서 학생들은 각 영역마다 4가지 간호기술을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 한명의 평가에 15-20분 정도가 걸렸으므로, 평가 내용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개의 방을 만들어서 평가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평가 받은 후에야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핸드폰 등 연락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시험장과 외부환경 사이를 차단하였다. 4가지 간호기술 수행순서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

연구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 각 40명 중에서 학습과 평가과정에 부분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8명을 제외하고, 실험군 36명(분만 산부 간호영역-20명, 산욕부 간호영역-16명), 대조군 36명(분만 산부 간호영역-18명, 산욕부 간호영역-18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 대상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정규 교과과정 안에 포함된 시간에 적용한 것은 아니다. 연구대상이 소속된 학교의 모성간호학 교수인 연구자가 임상실습의 적응과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본 학습방법을 개발하고, 교육과정 외에 추가로 관련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대조군에게도 똑같은 시간의 전통적인 실기 학습법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두군 모두 6시간 정도의 교육과 15분 정도의 지필고사, 15-20분 정도의 개별 실기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하여,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불이익이나 윤리적인 문제를 최소화 하였다. 또한 평가과정을 마친 후에 대조군에게도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피드백 하였다.

표준화 환자 역할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음부 관찰과 같은 간호수행으로 인한 노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고, 여러 명의 학생들에게 학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로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모형을 신체에 밀착 고정하고 사용하였다.

연구의 제한점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법을 개발한 연구자가 학습효과 평가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평가에서의 오류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또 한명의 교수가 실기평가과정 그리고 표준화 환자가 의사소통능력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 하였다.

또한 모성간호학 표준화 활용 학습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과정마다 전문가 자문을 거치고 모의검증을 통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학습법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를 하였다. 가설검정은 각 영역별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16-20명의 자료분석에 이용되었으므로, 비모수 검정인 Mann-Witney 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특성과 동질성 검증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을 살펴보았다. 대상자는 3년제 간호과 2학년 학생으로 모두 여자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의 나이는 각각 21.35세(1.8)(범위20-24세), 21.23세(1.9)(범위 20-23세)로 차이는 없었다. 두 군 모두 모성간호학 교과과정에서 정상 임신, 분만과정을 배운 상태로 수업경험의 차이는 없었다. 성적은 1학년 1, 2학기 및 2학년 1학기 총 3학기의 학과성적을 합산하여 비교하였다. 분만 산부 간호영역의 실험군 평균 점수는 3.50(.47)점 대조군의 평균은 3.55(.41)점으로 두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z=-.564$, $p=.573$), 산욕부 간호영역의 실험군 평균점은 3.55(.41)점, 대조군은 3.64(.34)점으로 역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z=-.615$, $p=.539$).

의사결정능력 비교

의사결정능력을 비교한 바 <Table 1>과 같으며, 자료파악능력과 간호술제시능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만 산부 간호영역에서 두 집단의 자료파악능력 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z=-1.418$, $p=.156$), 관련 간호술제시능력에도 차이가 없었다($z=-.643$, $p=.520$). 산욕부 간호영역을 살펴보면 두 집단 간 자료파악능력 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z=-.264$, $p=.782$), 간호술제시능력 역시 차이가 없었다($z=-.342$, $p=.732$). 따라서 가설 1.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모성간호학 실습 학습방법을 수행한 실험군은 전통적 실기 학습법을 적용한 대조군보다 의사결정능력 점수가 높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간호기술수행능력 비교

<Table 1> Comparisons of the decision making skills

Categories	Variables	Exp. (n=20)	Cont. (n=18)	Z-value	p-value
		Mean $\pm$ SD	Mean $\pm$ SD		
Intrapartum nursing care	Identification of data	14.00 $\pm$.86	14.39 $\pm$.61	-1.418	.156
	Necessary nursing skills	18.63 $\pm$ 1.57	18.33 $\pm$ 1.51	-.643	.520
		(n=16)	(n=18)		
Postpartum nursing care	Identification of data	13.87 $\pm$ 1.19	13.83 $\pm$.99	-.264	.782
	Necessary nursing skills	18.28 $\pm$ 1.76	18.47 $\pm$ 1.75	-.342	.732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간호기술수행능력을 교수자 2인이 평가하여 비교한 바 <Table 2>와 같다. 분만 산부 간호영역의 경우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모든 항목에서 간호기술수행능력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z=-4.181$, $p=.000$). 산욕부 간호영역에서도 실험군의 간호기술수행능력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z=-4.279$, $p=.000$). 따라서 가설 2.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모성간호학 실습 학습방법을 적용한 실험군은 전통적 실기 학습법을 받은 대조군보다 간호기술수행능력 점수가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의사소통능력 비교

실험군과 대조군의 간호대상자와의 의사소통능력을 비교한 바 <Table 3>과 같다. 먼저 분만 산부 간호영역에서 교수자 2인의 평가결과는 실험군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z=-4.058$, $p=.000$), 표준화 환자의 평가도 같은 결과였다($z=-2.726$, $p=.006$). 산욕부 간호영역에서도 교수자의 평가는 실험군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z=-3.945$, $p=.000$), 표준화 환자의 평가 역시 실험군이 높았다($z=-3.637$, $p=.000$). 따라서 가설 3.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모성간호학 실습 학습방법을

<Table 2> Comparisons of the nursing skill performance

Categories	Variables	Exp. (n=20)	Cont. (n=18)	Z-value	p-value
		Mean $\pm$ SD	Mean $\pm$ SD		
Intrapartum nursing care	Assessment of labor	1.63 $\pm$.16	1.37 $\pm$.30	-2.945	.003*
	Measurement of fetal heart rate	1.56 $\pm$.17	1.34 $\pm$.23	-3.148	.001*
	Comfort measures during labor	1.77 $\pm$.78	1.32 $\pm$.27	-4.284	.000**
	Emotional support	1.80 $\pm$.13	1.49 $\pm$.19	-4.514	.000**
	Total	1.69 $\pm$.12	1.38 $\pm$.20	-4.181	.000**
		(n=16)	(n=18)		
Postpartum nursing care	Assessment of uterine involution	1.73 $\pm$.33	1.43 $\pm$.14	-3.708	.000**
	Care of bladder & perineum	1.45 $\pm$.17	1.31 $\pm$.13	-2.648	.000**
	Care of breast	1.71 $\pm$.13	1.44 $\pm$.17	-3.896	.000**
	Discharge teaching	1.78 $\pm$.12	1.51 $\pm$.15	-4.292	.000**
	Total	1.67 $\pm$.14	1.42 $\pm$.11	-4.279	.000**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 $p<.01$ ** $p<.001$

<Table 3> Comparisons of communication skill

Categories	Variables	Exp. (n=20)	Cont. (n=18)	Z-value	p-value
		Mean $\pm$ SD	Mean $\pm$ SD		
Intrapartum nursing care	Instructor evaluation	4.49 $\pm$.40	3.59 $\pm$.59	-4.058	.000**
	SP evaluation	4.45 $\pm$.45	3.92 $\pm$.64	-2.726	.006*
	Total	4.47 $\pm$.37	3.76 $\pm$.55	-3.731	.000**
		(n=16)	(n=18)		
Postpartum nursing care	Instructor evaluation	4.56 $\pm$.24	3.94 $\pm$.46	-3.945	.000**
	SP evaluation	4.34 $\pm$.22	3.67 $\pm$.51	-3.637	.000**
	Total	4.45 $\pm$.17	3.81 $\pm$.39	-4.066	.000**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SP(standardized patients)

* $p<.01$ ** $p<.001$

적용한 실험군은 전통적 실기 학습법을 받은 대조군보다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논 의

본 연구를 통하여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모성간호학 실습 학습법의 개발하고 적용하여 임상실습 적응능력과 간호실무능력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도하게 되었다. 학습과제, 학습목표, 프로토콜 그리고 사례 및 시나리오 개발 과정을 거쳐 표준화 환자를 선발·훈련시켰으며, 최종적으로는 산부 및 산욕부 간호영역에 대한 가상 임상상황을 구현하고 그 학습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 후 실험군의 자료파악능력 및 간호술제시능력은 전통적 실기 학습법을 받은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유문숙(2001a)의 연구에서 실험군의 의사결정능력이 높게 나온 것과는 차이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분석해 본 바, 본 연구에서 의사결정능력 평가는 지필고사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고등사고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에는 방법적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 이미 6시간의 교육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관련 사례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서술식 평가에서는 자료파악 및 간호술제시능력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법을 통해 임상적 판단이나 의사소통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간호학생의 모든 면을 평가하지는 못한다는 결과를 미루어 볼 때(Chabeli, 2001), 본 연구에서 임상적 판단인 의사결정능력의 차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제 표준화 환자의 다양한 반응을 보면서 맥락적인 상황 속에서 자료를 뽑아내고 판단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교수 2인이 간호학생의 실기능력을 동시에 평가한 바, 모든 영역에서 실험군의 간호기술수행능력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기본간호학 혹은 성인간호학 실습영역의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성가연, 2008; 유문숙, 2001a; 유문숙, 2001b; 유문숙, 유일영, 2001; 유문숙 등, 2002; 유문숙, 유일영, 2003). 국외에서도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아동전문간호사 교육(Vessey & Huss, 2002), 부인과 골반검진 교육(Theroux & Pearce, 2006) 등에서 간호술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었다. 즉, 표준화 환자를 이용하여 간호실무교육을 하였을 때 신체사정, 간호기술 및 의사소통 능력에 있어서 기존 모형평가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한 결과(Brown & Robert, 1990)와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실습교육이 임상수기능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학습법은 학생들이 실습현장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학생의 부담을 낮추고 교수의 효율적인 지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최자윤 등, 2008). 본 연구에서도 교수의 직접적인 설명보다는, 학생이 직접 간호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표준화 환자가 보이는 반응을 통해 실무에 대한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평가과정 후 교수의 피드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가치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모성간호학 실습 학습방법을 수행한 실험군의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유문숙과 유일영(2001) 그리고 성가연(200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간호현장에서는 지식, 임상수기술 뿐 아니라 대상자와의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도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하면 학생들은 당황하지 않고 임상상황에서 제기되는 의사소통의 내용 및 대처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성가연, 2008). 본 연구를 통하여 학생들은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자연스럽게 여윌 수 있는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이 수행할 간호를 설명하고 수행과정에서 대상자 반응을 살피는 훈련을 함으로써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치료적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유문숙, 2001a; 유문숙, 2001b)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자를 가까이서 경험하게 됨으로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임상현장에서 간호학생이 부딪히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치료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질적인 간호에도 기여하리라 본다(성가연, 2008). 추후 학생과 표준화 환자의 의사소통 내용을 분석해봄으로서, 간호학생들이 느끼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장애를 예측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면담이나 의사소통 모듈을 개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능력을 교수자와 표준화 환자가 동시에 평가하였다. 학생 평가의 기준과 항목이 잘 개발된다면 표준화 환자를 평가자로 활용했을 때, 감정적인 부분이나 환자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에서는 교수평가보다 환자의 입장을 보다 잘 반영하는 측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김선, 박성완, 허예라, 이수정, 2005). 가상임상 상황을 구현함으로써 학생들은 간접 임상경험을 쌓게 되고 자신감과 확실성을 가지고 대상자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간호기술과 의사소통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표준화 환자 활용이 더욱 유용하리라 판단되므로 관련 분야에 대한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임상 평가방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 과정이 요구되며 간호학생, 교수는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기도 한다(Brosnan, Evans, Brosnan, &

Brown, 2006). 본 연구에서도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 비로소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임상상황을 구현해 낼 수 있었다. 학생 평가시에도 개별 실기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오랜 준비작업과 수행착오가 동반되지만, 학생들은 표준화 환자와의 경험을 통하여 임상현장 적응력이 향상된다는 결과(이여진 등, 2007; Brosnan et al., 2006)를 볼 때, 표준화 환자 활용 학습법은 보건의료파트 분야에서 충분히 교육적 가치가 있다. 국외에서는 이런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OSCE(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를 간호학생 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간호사 분야에 적용하여 그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있다(Brewester et al., 2008). 교수 입장에서는 가상 임상상황 구현 및 평가와 관련된 부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적, 제도적 그리고 경제적인 뒷받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고 역동적인 임상현장에서 유용한 간호실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간호학 소분야를 통합시킨 사례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의학교육에서도 표준화 환자의 활용이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많다(Brewester et al., 2008). 본 연구 수행시 표준화 환자 훈련과 활용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표준화 환자의 평가자로서의 가치와 그 효용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평가할 수 있는 적정 학생수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표준화 환자의 학생 평가의 정확도를 살펴본 의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5시간 이상 16명의 평가에 참여하면서도 채점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추후 표준화 환자의 피로도 누적에 따른 학생평가의 정확도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박완범 등, 2007). 또 평가교수와 표준화 환자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피드백, 상세한 표준 평가 지침의 개발 및 평가자간 차이점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통해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권복규 등, 2005; Lie et al., 2007). 표준화 환자 선발 및 훈련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교적 간단한 사례 및 시나리오에는 간호학생을 표준화 환자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간호대상자의 입장을 경험하는 과정 자체로서도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까지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임상실습의 효과를 극대화 하여 학생들의 실무능력 향상시키고, 질적인 간호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호교육자에게는 늘 새로운 학습방법에 대한 도전이 요구된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모성간호학의 일영역에 대한 표준화 활용 학습법 개발에 그쳤지만, 지속적으로 간호학에서 통합 프로그램 개발과 반복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시뮬레이션 교육이 대세가 되고 있는 보건의료교육의 현실 속에서, 표준

화 환자의 활용은 임상실무능력 향상에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학습법이 되리라 본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하여 모성간호학 실습 교육에서 임상실습 전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개발하고 학습효과를 분석하였다. 임상사례와 관련서적에 근거하여 학습과제, 목표, 프로토콜을 제시하고 사례와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으며, 표준화 환자 훈련을 통하여 가상 임상상황을 구현하였다. 전통적 실기 학습법을 적용한 대조군과 비교하여 학습효과를 살펴보았으며, 각 그룹 당 3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간호학생의 의사결정능력을 지필고사의 형식으로 비교한 바, 두 집단 간 자료파악능력과 간호술제시능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실기평가를 통해 간호기술수행능력을 비교한 바, 분만 산부 및 산욕부 간호영역에서 실험군이 모든 항목에서 대조군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셋째, 교수와 표준화 환자가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한 바,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법을 적용한 그룹의 의사소통능력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언한다.

- 평가 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재검증 및 대규모 반복연구를 통하여, 추후 모성간호학 및 여타 분야의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과 평가가 일반화되기를 기대한다.
- 표준화 환자 선발과 훈련 및 비용 등 준비과정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동료 혹은 선배 간호학생을 표준화 환자로 활용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 표준화 환자 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 및 주관적 경험분석을 통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으로 수정·보완되기를 바란다.
- 표준화 환자와 같은 현실적 문제해결형 학습방법은 장기적으로는 통합교과의 운영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학습방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권복규, 김나진, 이순남, 어은경, 박혜숙, 이동현, 박미혜, 오지영, 한재진, 허정원, 유경하 (2005).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임상수행능력평가시험에서 교수와 표준화 환자의 평가 결과 비교. *한국의학교육*, 17(2), 173-183.

- 김선, 박성환, 허예라, 이수정 (2005). 진료수행시험 평가자로서 표준화 환자 활용의 타당성. *한국의학교육*, 17(2), 163-172.
- 김윤미, 박영숙, 정재원, 김문정 (2006). 모성간호학 실습에서의 문제바탕학습 적용과 평가.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2(4), 326-337.
- 박미영, 김순이 (2000). 전문대 간호학생들의 첫 임상실습 체험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6(1), 23-35.
- 박완범, 김아름, 이성아, 김은아, 장선영, 김연수, 김석화, 신좌섭, 이운성(2007). 진료수행시험에서 시험 시간 경과에 따른 표준화 환자 채점의 정확도 분석. *한국의학교육*, 19(1), 39-45.
- 성가연 (2008).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인술린 피하주사 실습 교육의 효과*. 을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전.
- 이여진, 임난영, 이은희, 한혜자, 김주현, 손행미, 박영숙, 강현숙, 조경숙, 김동옥, 권성복, 이인옥 (2007).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관절질환 간호사정 실습교육의 평가, *근관절건강학회지*, 14(2), 137-148.
- 엄영란, 서연옥, 송라운, 전경자, 유경희, 조남옥(1998). 실무수행능력 중심의 교육모형 및 측정도구개발. *한국간호교육학회지*, 4(2), 220-235.
- 유문숙 (2001a).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학습방법의 개발 및 효과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 유문숙 (2001b).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에 있어 표준화환자를 이용한 학습방법의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7(1), 94-112.
- 유문숙, 유일영 (2001).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학습이 임상수기술, 의사소통능력,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간호학탐구*, 10(1), 89-109.
- 유문숙, 유일영, 박연옥, 손연정 (2002). 기본간호학 실습교육 방법에 따른 학생들의 간호수행능력의 비교. *대한간호학회지*, 32(3), 327- 335.
- 유문숙, 유일영 (2003). 호흡기계 기본간호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OSCE 평가 방법의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33(2), 228-235.
- 정웅, 조한진, 김신철, 최한성, 홍훈표, 김명천 (2006). 웹기반 문제중심학습을 이용한 응급의학 교육과정연구, *대한응급의학학회지*, 17(3), 203-209.
- 최자윤, 장금성, 최순희, 홍미순 (2008). 호흡기계 표준화환자를 이용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평가 타당도와 신뢰도검증. *대한간호학회지*, 38(1), 83-91.
- 홍영재 (1992). Standardized Patient를 이용한 임상교육. *한국 의학교육*, 4(2), 12-17.
- Baum, K. D., & Axtell, S. (2005). Trends in north american medical education. *Keio Journal of Medicine*, 54, 22-28.
- Beeson, S., & Kring, D. L. (1999). The effects of two teaching methods on nursing student's factual knowledge and performance of psychomotor skill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8(8), 357-359.
- Brewester, L. P., Risucci, D. A., Joehl, R. J., Littooy, F. N., Temeck, B. K., Gabler Blairs, P., & Sachdeva, A. K. (2008). Comparison of resident self-assessments with trained faculty and standardized patient assessments of clinical and technical skills in a structured educational module. *The American Journal of Surgery*, 195, 1-4.
- Brosnan, M., Evans, W., Brosnan, E., & Brown, G. (2006). Implementing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skill evaluation (OSCE) in nurse registration programmes in a centre in Ireland: a utilisation focused evaluation. *Nurse Education Today*, 26(2), 115-122
- Brown, B., & Robert, J. (1990). Testing the OSCE: A reliable measurement of clinical nursing skill. *The Canadia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22(1), 51-59
- Chabeli, M. M. (2001). Nurse educators' perceptions of OSCE as a clinical evaluation method. *Curationis*, 24(1), 84-92.
- Faul, F., Erdfelder, E., Lang, A. G., & Buchner, A.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 175-191.
- Glaser, J. (1992). *Cognitive theory as the basis for design of innovative assessment*; Los Angeles, CA: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on evaluation, standards, and students testing.
- Lie, D., Boker, J., Bereikneyi, S., Ahearn, S., Fesko, C., & Lenahan, P. (2007). Validating measures of third year medical students' use of interpreters by standardized patients and faculty observers. *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22(suppl 2), 336-340.
- Reusch, J. (1973). *Therapeutic communication*. New York: W. W. Norton & Co., Inc.
- Schwartz, R. (1990). Nurse decision-making influence,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20(6), 35-39.
- Theroux, R., & Pearce, C. (2006). Graduate students' experiences with standardized patients as adjuncts for teaching pelvic examinations. *Journal of the Academy of Nurse Practitioners*, 18, 429-435.
- Vessey, J. A., & Huss, K. (2002). Using standardized patients in advanced practice nursing educations.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18(1), 29-34.

Evaluation of the Standardized Patients(SP) Managed Instruction for a Clinical Maternity Nursing Course

Lee, Seoung Eun¹⁾

1)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in Women's Colleg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earning effect of a standardized patient managed instruction program for a clinical maternity nursing course. **Methods:** The SP managed instruction was made for clinical cases in intrapartum and postpartum nursing care. The SP managed instruction was evaluated by using a quasi-experimental,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ost-test design with separate classes of students attending clinical maternity nursing classes at a nursing school in Incheon. Control groups were taught by traditional lecture/model method and experimental groups were taught by SP managed instruction. Data was collected from September 2009 to February 2010. **Results:** 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in identifying relevant data ($z=-1.418$, $p=.156$) and necessary nursing skills performance ($z=-.643$, $p=.520$) for intrapartum nursing care. In addi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identifying relevant data ($z=-.264$, $p=.782$) and necessary nursing skill ($z=-.342$, $p=.732$) for postpartum nursing care. 2. In clinical nursing skill performances the total sco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n the control group (intrapartum care $z=-4.181$, $p=.000$, postpartum care $z=-4.279$, $p=.000$). 3.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trapartum care $z=-3.731$, $p=.000$, postpartum care $z=-4.066$, $p=.000$). **Conclusion:** In conclusion, the SP method is effective in teaching clinical maternity nursing for student nurses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SP instruction courses for many areas in the clinical nursing education field.

Key words : Patient simulation, Maternity nursing, Learning, Evaluation studie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Seoung-Eun

Department of Nursing, Kyung-in Women's College

548-4, Kyesan-dong., Kyeyang-gu, Incheon 407-740, Korea

Tel: 82-32-540-0188 Fax: 82-32-555-2614 E-mail: leese@kic.ac.kr